

베니스로 간 한국의 단색화... 국제무대 첫 시험대 오르다



작가 하종현(왼쪽부터), 이우환, 이용우 심사위원, 박서보 화백이 베니스의 팔라초 콘타리니 폴리나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다각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한국의 단색화가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현지에서 소개된다. 벨기에 보고시안재단이 주최하고 국제갤러리가 주관하는 '단색화전'이 8월 15일까지 15세기 초 르네상스 양식을 따른 유서 깊은 건축물인 팔라초 콘타리니 폴리나크에서 열린다.

● 8월까지 팔라초 콘타리니 폴리나크서 전시 이번 전시에선 단색화 대표 작가로 꼽히는 박서보(84), 정상화(83), 하종현(80), 이우환(79), 작고 작가인 김환기(1913~1974), 권영우(1926~2013), 정창섭(1927~2011)의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베니스비엔날레 재단의 승인을 받아 참가비를 납부한 후 열리는 44건의 병행 전시 중 하나다.

전시를 기획한 이용우 심사위원은 "이번 전시는 단색화가 국제 무대로 가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베니스비엔날레는 프리오픈 사흘간 5만 명의 미술계 주요 인물들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문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색화가 사실상 본격적인 데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 모노크롬 양식과 한국 단색화의 차이에 대해 그는 "모노크롬은 회화의 종말이라는 의식을 바닥에 깔고 색채를 없앤 것이지만 단색화는 당대의 역

사 및 제약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자세로 당대를 표현하면서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행위와 물성, 정신의 합일이 기본 정신"

참여 작가인 박서보는 "단색화는 서양의 것과는 달리 행위의 무목적성, 반복성, 행위 및 물성과 정신의 합일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하종현은 "가난하고 부족했으며 정치적으로 복

잡했던 시절에 할 수 있는 행위를 시도했다"면서

"세계 미술사에서 회화로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단색화가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우환은 이번에 비교적 초기 작품인 '점으로

부터'와 '선으로부터' 등의 단색화 작품과 함께 철과 돌, 공간을 고려한 신작 '다이얼로그(Dialogue), 관계 항' 연작을 전시한다.

현장의 특성을 살린 야외 설치전으로 '단색화 와 이우환'을 선보이는 그는 "이번 전시는 단색화가 연장 또는 확대되는 전람회로 이번 전시작도 공간 위주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우환은 5개의 방에 알프스에서 가져온 둥근 모양의 돌을 설치하는가 하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바닥과 벽 등에 붓으로 표현했다.

글·사진 베니스(이탈리아)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